

양호교사의 활동기

최 순 희

수원시 이목중학교 양호교사

예상 외로 길이 막히지 않아 어느때보다 일찍 출근한 이른 아침. 양호실 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운동장에는 축구하는 아이들과 응원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 출렁인다. 그들의 건강하고 밝은 함성이 힘차게 들리고, 바람에는 땀내음이 향기로 물씬 배어 온다. 그들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 함성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땀내음이 향기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아침이다. 어느새 피곤했던 새벽녘, 그리도 힘들던 출근길의 고통이 말끔히 잊혀지고 그들의 싱그러운 출렁임 속에 나도 같이 뛰어 들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하루를 받아 안은 아침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아이들에게서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며,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감격을 맛보곤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1800여 명의 학생과 70여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32학급의 남자 중학교이다. 신설된 지 4년이 되었으며, 근간에 설립된 학교들이 그렇듯이 교사 주변의 면적이 협소하다. 그러나 주변에 산이있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경력이 십여 년이 넘었고, 지금 재직 중인 학교가 다섯번 째 근무하는 학교인데도 양호교사로서의 업무가 언제나 새롭고 낯설게 느껴져 매우 난감할때도 있다. 아마 주요 기능이 교육·연구·봉사인 교육기관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학력 또는 입시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초·중·고등학교라는 상황에서 “보건”이라는 업무를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일까. 우선 스스로에게 “그 무엇도 건강을 바탕으로 할때 의미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본다.

그리고 되내인 그 말의 의미가 내 의식에서, 내 몸에서 스며나오도록 열심히 움직인다.

세계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한국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학생 인구는 사회의 가장 큰 잠재 자원이다. 특히 내일의 사회에서 주인이 되는 학생 인구의 건강은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는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건강 문제는 다른 인구층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와 사춘기·생식기를 향한 이행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 그리고 사고 위험에의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인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보건은 교유헌동의 중요한 한부분이며, 이에 학교 보건의 목적은 학교에 있어서의 보건 교육과 보건 관리를 적절히 하므로써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학교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보건 전담자인 양호교사의 업무는 크게 건강관리, 환경관리, 보건 교육 3가지로 나눌수 있다. 건강관리 업무를 세분하면 양호실 운영, 통상질환관리, 신체검사를 들 수 있다.

양호실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호실이라는 공간 확보이다. 문헌에 의하면 양호실의 위치는 1층, 본관 중앙, 통풍 채광이 잘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학년 초 이곳 저곳을 배치하고 남은 공간이 양호실 차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학교 신축시 과학실이나 서무실처럼 미리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하며 상·하수도 시

설 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면적 면에서는 1개 교실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의 많은 양호실은 협소하여 응급처치 만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 1개 교실의 면적이면 처치실, 요양실, 상담실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 생각한다. 본교의 경우 지난 2년 간은 3층, 북향 교실의 반을 양호실로 배치받았는데, 금년에는 1층, 남향 그리고 현관 옆에 배치되었다. 그 결과 교실, 복도, 운동장 어디서든 오기에 편리한 위치이고 필요시에는 차량이 대기하기도 좋다. 작년의 경우처럼 운동장에서 다친 아이가 3층까지 올라왔다가 병원에 가기 위해 다시 내려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

공간이 확보된 후 여러 가지 시설과 약품, 소모품이 준비되어야 양호실 운영이 잘될 것이라 본다. 응급처치를 할때 소독된 거즈와 솜을 써야 하는데 예전에는 소독할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였다. 또한 기구 소독을 물에 넣고 끓이는 방법을 하였는데 이때 역시 수질이 나쁜 경우 기구에 뿌옇게 이물질이 묻어 난감하였다. 허나 이제는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하여 매우 간편하게, 효과적으로 거즈, 솜, 기구들을 소독하여 쓰고 있다. 자외선 소독기는 양호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

상담활동은 학생의 요구시, 담임교사의 의뢰시, 양호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실시하고 있다.

매체활용은 양호실 벽에, 양호실 복도에 보건 소식 판넬을 부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정통신문, 전화, 유인물,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다.

기록은 매일 쓰는 양호일지, 주일마다 사용량을 기록하는 약품수불부가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버금가는 중요한 서류인 건강기록부를 양호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

통상질환의 관리 면에서는, 학생의 몸은 새로운 상태이고 자라는 시기이므로 대부분 건강상의 별 문제가 없는 연령층이긴 하지만 양호실에

서 관리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단한 처치에 의해 해결되나 드물게 병원에 의뢰해야할 정도의 증상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 때는 Vital Sign을 보고 병원의뢰 여부를 결정하며 병원에 이송하거나,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부모와 같이 병원에 가도록 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남자 중학교이므로 골절을 입거나 창상으로 봉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편이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여러 Clinic이 밀집해 있어 활용하고 있다. 큰 병원일수록 의사를 대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작은 Clinic을 이용하는게 편리하였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문헌을 접하려고 노력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가정의학”, “약물요법” 등의 서적을 구입하여 통상질환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양호교사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므로 통상질환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교육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신체검사는 체격검사, 체질검사로 나누어지며 체질검사는 양호교사가 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건강기록부 기입란에는 등심대, 가슴통, 눈, 귀, 코, 목, 피부, 영양, 심, 폐를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난과 치과외사의 검진 결과를 기록하는 난이 있어 재적인원이 몇천 명이건 교의와 치과 교의가 전교생을 검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몇천 명을 진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학생 1인당 3분의 진찰을 한다 하여도 $3 \times 1800 = 5400$ (분), $5400 \div 60 = 90$ (시간), 교의가 1일 내내 상주하여 8시간씩 진찰한다 하여도 12일 간은 체질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개업한 의사가 본인의 병원을 두고 학교에 올 리도 없으며, 설사 온다하여도 교의수당(수원의 경우 중학교는 5만원 내외)이 소액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반에서 1~

2명의 학생이 대표로 의사 검진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의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채 정상 또는 양호로 기록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의사 검진에도 올 의사가 없어 해마다 4·5월이면 의사를 여기 저기 수소문해야 한다. 전통이 있는 학교라면 졸업생 중 의사도 있으면만 신설 4년제이니 차선택으로 학부모 중에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행히 아버지가 의사인 학생이 한명 있어, 교장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학부모가 2시간 정도 학교에 방문하여 급년도 의사 검진은 무사히 해결(?)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의사 검진은 약식으로 해결되었으나, 치과교의 검진란은 공란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형식에 흐르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짓 기록을 해야 할까. 학교보건공사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그곳에 소속된 의사가 각 학교를 며칠씩 순회하며 검진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고, 양호교사에게 체질검사를 할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실시케 하고, 의심이 가는 학생은 병원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개선 없이 지금의 방법이 계속된다면 체질검사의 본래 취지는 없고, 학생들에게 공문서에 거짓이 기록되고 있다는 교육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타 검사로 x-선 촬영, 요검사, 기생충 검사 등이 있는데, 실시 전에 유인물을 각 반에 배부하고 당일 검사직전에 교실에 들어가 검사의 이름,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 업무는 음료수, 학교식품 위생, 분뇨 및 오물과 환기, 난방, 소음, 조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음료수는 상수도와 지하수, 지표수, 우수 등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검사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포

함된다.

본교의 경우 현대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으며, 상수도 설치 이전에는 년 2회의 수질검사와 정기적인 염소소독을 실시하였고, 우상의 물탱크 청소도 년 2회 정도 실시하였다.

학교 식품위생은 학교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위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교에서는 우유급식을 희망자에 한하여 하고 있다. 우유급식관리는 보냉차를 이용한 운반, 냉장고 시설, 배달 즉시 각 반에 공급 등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분뇨 및 오물의 관리는 수세식 변소이므로 예전의 재래식 변소보다는 관리가 편리하며 청소와 소독 역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쓰레기 처리는 태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 등으로 분류수집되어 처리되어야 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허나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각 교실의 환기는 주변 학생들의 활동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난방은 라디에이터가 벽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래식 난로가 교실 중앙에 설치되어 연료 공급시와 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교실 공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열도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난방 방법이 쓰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소음은 본교의 위치상 거의 없는 환경이다.

조명은 남향 교실의 경우 흐린 날에 인공조명을 사용하여 조절하고, 북향 교실은 거의 전 시간에 인공조명으로 조도를 높여 시력장애, 사고의 예방, 학습능률 향상에 유의하고 있다.

정규 보건 교육 업무는 WHO에서 정의한 대로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20세기에는 건강은 국민이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른 추세에 맞추어 우리 나라도 예

의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이 요구되게 된다. 효율적인 보건사업 실천에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것은 예방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질병의 예방대 치료의 경제성은 1:16이며 이러한 경제적 이점외에 고통경감의 이점이 있으므로 예방사업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보건사업이 바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 인력, 시설, 재원이 조달되고, 상위 정책입안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여야 한다. 둘째, 건강관리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뚜렷한 사업 철학과 계속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셋째, 국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국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방법을 보건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보건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건강에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구성원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변화가 용이한 시기에 올바른 건강습관을 실생활에 행동화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 보건 교육이 더욱 중시되는 이유는 일생 중 가장 성장발달이 활발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때에 교육 되어진 것은 일생의 건강관리에 기초가 될수 있으며 특히 이들의 올바른 건강 지식이나 태도, 행위는 가정에까지 과급효과가 있어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행위 변화유도의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인구의 25%정도를 점하는 학

교 인구의 올바른 보건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볼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건에 관한 내용의 교육이 체육에 포함되어 있어 체육교사가 보건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교사가 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보건에 대한 지식 부족, 학생들의 무관심, 학습 자료의 미비 등으로 나타난 보고가 있으며, 보건에 대한 수업시간도 배정된 10%~25%보다 훨씬 낮은 3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 체육교사가 77%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배치된 인력 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한는데 적절한 인력은 양호교사이다.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과목이 정규과목으로 독립되고, 보건과목 담당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건과목 담당교사는 양호교사에게 보수교육을 하여 배출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본다.

건강 습관의 변화가 용이하며 학교생활교육을 통한 건강행위의 습관화라는 관점에서 볼때 보건교육의 비율은 높이고 활성화하는 것이 보건과목의 궁극의 목표도달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본교의 경우 체육교과 운영을 team teaching 방법으로 하고 있다. 체육교과를 내용 별로 나누어 각 종목을 체육교사의 전공에 따라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를 전공한 체육교사는 태권도만을 학년과 학급에 따라 나누지 않고 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체육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양호교사는 체육교과의 보건편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예지각의 체육 교과서를 쓰는데,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보건편의 내용을 각 학년마다 총 체육교과 102시간 중 11시간(11%)에 가르치도록 시간 배정이 되어 있다. 허나 체육교과 협의

회의에서 보건은 6시간으로 줄여 가르치기로 하고 양호교사가 맡기로 하였다. 1학년 6학급, 2학년 13학급을 1학기에 각 학급당 6시간씩 수업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3학년 13학급은 2학기에 각 학급당 6시간씩 들어 갈 계획이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학사가 양호교사의 보건 수업에 우려를 표시하고, 수업에는 들어가되 학급일지나 출석부에는 체육교사의 이름을 쓰라고 충고(?)한적이 있었다. 허나 보건에 대해서 만은 양호교사가 잘 안다는 오지의 설명에 교감 선생님이 이해해 주셨고 체육교사들의 협조로 사실대로 기록하며 잘 진행하고 있다. 기말시험에는 체육필기시험에 문제 20문항 중 10문항을 보건 내용에서 출제하였다.

수도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오존층의 파괴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 또한 선진국의 전철을 밝고 있는 의료비의 상승, 실시만 한다면 모든 의료문제가 해결될것 같았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노정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보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보건교육의 강화라고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단히 양호교사의 업무를 건강관리, 환경관리, 보건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끔 양호교사는 마치 가정에서의 주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있으면 표가 앓나더라도 없으면 그 자리가 컸음을 절실히 알게 하는 사람, 점심시간 식사중인데 양호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왼손을 오므리고 한 학생이 들어 온다. 오므린 손에 빨간색이 언뜻 보인다. ‘다쳤구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승범아, 손 다쳤구나!’ 툰이 높게 울리는 나의 목소리. 그러나 변함없는 속도로 가까이 온 아이의 손은 산딸기로 차 있었다. ‘테니스 코트 뒤 동산에 가니까 산딸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잡수시랴구요.’ 씩 웃으며 나가는 능청스러운 뒷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고마움에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내일도 이른 아침 양호실 자물쇠를 열때, 이 목중학교 가족에게 유익하게 쓰이고 이로운 이웃이기를,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하지 않는 하루이기를 소망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화중 : 양호교사의 업무와 학습지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WHO, 1989.
2. 이경식의 : 학교양호실무, 수문사, 1986.
3. 박노예 : 보건교육, 수문사, 1989.
4. 김종서의 : 교육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5. 박성순외 : 중학교 체육 교사용 지도서, 예지각, 1989.
6. 배원환 : 대구시내 체육교사를 통한 학교보건교육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3.
7. 최순희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0.

